

응급환축의 처치(1)

-응급상태에 있는 환축의 수술 및 관리-

윤 정 희*

응급처치 기술을 숙지하고 있으면 응급상태에 있는 환축을 많이 도울 수 있다. 특히 심한 상해를 입은 동물이나 중중에 걸린 동물에서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생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생명을 유지시켜 안전하고 안락하게 환축을 병원으로 수송하여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제1 단계이다.

1. 응급상태에 있는 환축의 수술

상처를 입은 동물을 수송하는 기본원칙은 상처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며, 그 동물의 수송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상처도 입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상해를 입은 동물을 옮기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하여 봄으로써 대개 이룰 수 있다.

상처를 입었거나 중대한 동물은 흔히 동통을 호소하여 분별없이 행동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물을 취급하는 이들이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개에게 거어즈, 밧줄, 넥타이를 사용해서 입마개를 한다든지, 작은 개나 고양이에게 담요나 수건으로 감아 싼다든지 그리고 큰 환축은 강력한 발굽으로 차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의 사전조치를 하면 사

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반면 간접적으로 환축에게도 잇점이 된다.

중중 환축의 상태는 수송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한 출혈을 막아 준다던가, 골절부위에 일시적으로나마 부목을 해 준다던가 또는 일사병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때때로 상해를 입은 동물의 축주와 전화 통화로서 병원으로 수송해 오는 동안 환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 알려 주기도 한다.

대동물은 대개 트레일러나 트럭으로만 수송이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수송하느냐에 따라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축의 상태에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수송하는 동안 더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판자나 밧줄로서 적당하게 보정하여야 하며 만약 환축이 횡외자세로 눕는다면 받침을 잘 깔아 주어야 한다.

소동물은 상처나 성벽 등을 잘 고려해서 팔로 안거나 상자와 바구니로 조심해서 옮겨와야 한다. 척추손상이나 심한 외상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무의식 상태와 같은 경우는 담요나 또는 딱딱한 판자나 나무문 같은 것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다. 만약 필요하다면 벨트나 밧줄로서 임시적인 들것에 동물을 매어서 수송중 가장 적게 흔들리도록 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대학원생)

2. 처음에 해야 할 검사와 관리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린 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왔을 때에는 상세한 병력을 청취한다든가 또는 일반검사를 할 시간이 없다. 대개 그러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대해 먼저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적고, 긴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빨리 검사하여 기본적 구급조치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응급환측이 골절이나 심한 화상을 입지 않고 외관상 온전해 보일지라도 주의깊게 관심을 기울여 응급 처치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1) 우선순위

① 침착할 것 : 응급상태하에서는 흥분하기 쉽고, 모든 일을 곧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당황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심하게 상처를 입은 동물이나 중태에 있는 동물을 응급처치하기 위해서는 냉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을 평가하여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자신의 안전을 확실하게 할 것 : 소동물의 경우 입마개나 가죽끈, 담요나 수건 등을 대동물의 경우는 밧줄, 압착보정틀 등을 사용해서 적당히 보정되어 있도록 확인할 것.

③ 출혈을 막을 것 : 작은 출혈은 어느 정도 무시할지라도 큰 출혈은 압박을 하거나 지혈대를 해서 막아줘야 한다.

④ 적절한 호흡을 시켜줄 것 : 조직편이나 유출액 등으로 기도가 막혀있는 것을 배제하여 깨끗이 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관튜브를 삽입한다.

⑤ 필요하다면 속에 대한 처치를 해 줄 것.

⑥ 응급처치와 더불어 자세한 검사를 실시한

다.

3. 장비와 약품들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은 병원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나, 다음의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 중조, 포대용구(거즈팩, 면봉대, 거즈, 테이프), 담요, 수건, 10% 포도당, 기관튜브(각 크기별), 검사용 장갑, 이물제거용 검자, 과산화수소, 얼음, 레몬즙 또는 식초, 산소, 멸균 등장성 식염액, 청진기, 위관(각 크기별) 식염, 온도계, 지혈대, 수건 검자, 수용성 윤활액 등.

4. 품종에 따른 고려할 사항

동물병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 품종에 따라 어느 것이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바람직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건강한 말의 경우 1ℓ 정도의 출혈이 있다해도 계속해서 심한 출혈만 없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잉꼬새의 경우는 몇 방울의 피를 흘리는 것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은 특히 응급상태에서는 품종에 알맞게 행해져야 한다. 말이나 소와 같은 대동물의 경우는 크기가 크고 힘이 세어서 사람의 손 만으로는 보정하기가 힘들다. 밧줄이나 굴레를 사용해서 압착보정틀 등으로 흔히 보정한다. 개나 고양이 같은 소동물에서는 입마개, 수건, 담요, 가죽끈 등이 가끔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개 손으로 보정할 수 있다. 동물은 물론 동물을 취급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은 어떠한 처치에 있어서도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일이다.

동물을 효율적으로 처치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밀히 계획하여 그 동물에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하여 응급상태에 따른 처치기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